자광 스님 오도송, 국악가요로 재탄생

대불련총동문회 · (사)대불, 신곡 발표 기자회견

'오도송' 의미 살려 작사하고
권노해만 작곡, 양슬기 노래
'알았네' '마음타령' 음원 공개
자광 스님 "일체유심조 깨닫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선불교에서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 그 경험과 통찰을 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오도송(悟道頌)'이라 한다.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의 오도송이 가요로 재탄생했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최승태)와 사단법인 대불(이사장 명호근)은 12월 9일 서울 대학생·청년전법센터에서 자광 스님의 오도송 '알았네' 신곡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광 스님과 권노해만 작곡가, 양슬기 경기민요 이수자, 최승태 대불련총동문회장, 명호근 대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자광 스님의 오도송이 가요로 재탄생한 것은 최승태 회장이 올해 초 용인 금강선원에서 자광 스님의 오도송 비석을 보고 난 후다. 최 회장은 "눈덮힌 오도송 비석을 보고 이 내용을 대중들이 저잣거리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가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며 "이에 송가인의 '월하가약'을 작곡한 유명 작곡가 권노해만 씨와 대불련 출신 양슬기 이수자가 참여해 '알았네'와 '마음타령'이라는 곡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악가요 '알았네'와 '마음타령'의 음원이 최초로 공개됐다. '알았네'는 권노해만 작곡가의 특유의 깊고 섬세한 감성이 담긴 멜로디 라인에 깨달음의 메시지를 현대인의 감각에 맞춰 풀어 낸 국악가요다. '마음타령'은 조금 더 흥겹고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빠른 템포로 구성됐다. 이들 노래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12월 21일, 1월 4일 각각 발매될 예정이다.

권노해만 작곡가는 "자광 대종사님의 오도송을 대중들이 부를 수 있는 가요로 제작하게 돼 영광"이라며 깨달음이 담긴 불교콘텐츠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알아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 열린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오도송 '알았네' 신곡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인 CD를 권노해만 작곡가(왼쪽)와 양슬기 경기민요 이수자(오른쪽)가 자광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양슬기 이수자는 "오도송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노래하기 위해 동문 선배님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준비해 왔다"면서 "불교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좋은 말씀을 노래를 통해 알아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신의 오도송을 가요로 제작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한 이유에 대해 자광 스님은 "나 혼자만의 주장으로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다면 단어는 중요치 않다"고 했다.

자광 스님은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도 담겨 있지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잘 써야 좋은 사람이 된다. 모든 것은 마음이 관건"이라며 "이것이 내 오도송의 요지다. 가요 '알았네'를 통해 이 내용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광 스님은 오도송 가요 '알았네' 저작권을 대불련 총동문회에 양도했다. 저작권 수익은 포교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탐욕, 분노보다 더 위험한 어둠

㉒ 치(痴)

痴

분노와 증오는 자기 욕망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욕망에 대한 과도한 탐착은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은 탐진치 삼독 중에서 가시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가장 위험한 독이다. 어리석음[痴]-탐욕[貪]-분노[瞋]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면 이 삶의 쳇바퀴가 바로 금생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통의 윤회이다. 그러므로 붓다가 자애와 함께 지혜의 체득, 깨달음의 증득을 수행의 최종 목적으로 삼은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은 무엇일까? 대략적으로 서술해 보자. 참된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삶의 이치를 왜곡하여 아는 것을 말한다. 또는 사물과 사태의 실상에 어두운 것을 말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 즉 인과의 법칙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마음가짐이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행위를 한 사람도 즐거움을 누린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선한 행위를 한 사람도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나 악업의 과보가 익으면 악한 사람은 화를 당하고 선한 사람은 복을 누린다."

〈법구경〉에서 말하는 인과의 실상이 준엄하지 않는가?

어리석음은 무명(無明)으로 일컬어진다. 무명은 고통스런 삶의 악순환을 서술하고 있는 십이연기의 첫 번째에 놓여 있다. 〈상윳따 니까야〉의 '무명경'에서 무명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리불 존자의 동료 수행자가 묻는다.

"도반 사리불이여, '무명', 무명이라고들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무명입니까?"

"도반이여, 고성제에 대한 무지, 집성제에 대한 무지, 멸성제에 대한 무지, 도성제에 대한 무지를 일러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헤아려 보자. 삶의 불안과 고통의 모습과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삶을 극복하고 열반을 체험할 수 있는 팔정도를 실행하지 않음이 무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승경전인 〈원각경〉에서는 무명은 무명이라는 별도의 고정 불변의 어떤 실체가 아니라, 미망의 꿈을 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이 어리석음에 갇혀 있음을 알지 못함이 최악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욕락을 버리고 구도의 길에 선 출가자들이여,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잘 통찰하면서 가야 할 길을 고고히 가라."

붓다의 십대 제자인 우바리 존자의 게송이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길을 가는 발심과 원력이 생생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화순 불암사 주지〉

해외불교는 지금

동남아 각국 역대급 호우
현지 불교계 등 피해 막심

다수 사찰도 침수 및 붕괴
일부 긴급 대피소로 이용

최근 1주일간 동남아시아 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지 불교계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일반적으로 매년 6월부터 9월까지가 우기였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1월을 넘어 현재까지 폭우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에서는 불교계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2월 3일, 국제 불교뉴스 미디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각 외신들을 인용해 동남아 각국 불교계의 피해에 대해 전했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에 연쇄적으로 쏟아진 폭우는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키며 14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가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이번 '물 폭탄'은 단순한 우기의 수해를 넘어, 이례적 열대성 폭풍과 기후 변화가 결합한 복합 재난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태국의 경우 남부지역의 숲속에 있는 안거센터들과 지역 사찰들에 피해가 보고됐다. 국제참여불교연대(INEB)는 "남부 송클라주 소재 비구니 스님들이 머무는 사찰이 폭우로 모든 교통이 차단돼 식료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긴급구호 모금에 나섰다. 태국 당국은 이번 폭우로 남부 8개 주에서만 약 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의 경우 수도 콜롬보 전역이 홍수로 침수된 것은 물론 산악지역은 대규모 산사태로 고립되는 곳도 생겼다. 많은 사찰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사찰이 매몰되거나 불탑이 붕괴된 곳도 보고되고 있다. 고지대에 위치해 비교적 피해가 덜했던 사찰들은 현재 긴급 대피소 및 구호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피소로 운영 중인 한 사찰에 머무는 이재민은 "사찰에서 법당과 강당을 임시 거처로 내주었으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우기 때 홍수피해를 입는 건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은 너무나 심각하다. 모든 기본 물자가 부족하다"고 피해상황을 전했다.

현재 스리랑카는 약 21만8000명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당국은 모든 힘을 동원해 구호 및 구조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폭우가 시작된 베트남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안의 여러 고택과 사찰들에 침수 피해가 잇달아 보고됐다. 호이안 고택을 담당하는 학예사들은 "폭우가 예년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물들 마다 1m 이상의 받침대를 설치해 높이를 올렸으나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태국 역시 수도 방콕을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 강이 범람하면서 강가에 위치한 여러 사찰들에 침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현지의 불교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구호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해를 피한 사찰들이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불교계를 중심으로 구호금 모금과 생필품 기부를 받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침수된 사찰을 가리키며 피해를 설명하는 스리랑카 스님. 사진 출처=AFP통신



현시대에 맞게 되살린 붓다의 가르침!
불교 이후
세계적인 불교 사상가 스티븐 배철러가 전통적인 불교 해석을 넘어 우리 시대, 현시대에 맞게 불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신선한 시각을 제시한다.
스티븐 배철러 지음, 강병화 옮김, 신국판, 532쪽, 값 30,000원

업과 윤회에 대한 알기 쉬운 입문서!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업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하고, 그것이 지닌 현대적 의의에 대해 성찰하는데, 다양한 경전과 설화를 인용해서 이해를 돕는다.
히라오카 사토시 지음, 법장 옮김, 신국판, 256쪽, 값 18,000원

세계적인 명상 스승과의 문답!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
현대 최고의 마음챙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반테 G.(애칭) 스님이 지난 반세기 동안 주고받은 다양한 대화를 간결하게 집대성하여 20개의 주제로 엮었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박경미 옮김, 신국판, 384쪽, 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